

# 조손가정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조손통합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홍 달 아 기(원광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와 손자녀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그 효과성을 보는 것이며 나아가 조손통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동사무소에 등록된 16 조손가정 중 프로그램 참여를 중도 포기한 3가정 가정을 제외한 13가정(총 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조손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사전, 사후조사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자료분석 방법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F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으로 조손가족 형성의 배경은 부모의 이혼이 7가정, 부모의 유기 및 방임이 8가정, 부모의 별거가 1가정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조손가정 형성원인은 이혼, 가출, 사망, 맞벌이, 사고 또는 질병 순(김정은, 2002, 정일선, 2004, 정효미, 2006)으로 나타나 이혼이 조손가정의 가장 많은 요인인 결과와 일치된다. 둘째 요구도 조사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5문항의 포괄적 질문을 중심으로 한 조부모인터뷰와 동사무소의 조손가정 담당자의 관리내용을 참고로 하여 프로그램내용을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정서적 지원을 통해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개선과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회기구성은 조부모 3회기, 손자녀 3회기, 통합 1회기로 구성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은 조부모, 손자녀, 조부모-손자녀 통합의 세 대상영역으로 나누어서 각 대상영역마다 교육, 상담, 문화활동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조부모 대상 프로그램은 가족의 삶의 질의 열악함과 조부모의 부모역할로 인한 어려움, 손자녀들의 문제행동 등 조부모로서 대처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손자녀 양육방법 및 아동기의 특성을 고려한 대화법과 푸드아트치료를 통한 정서적 위안 및 상담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손자녀에게는 학교 및 가정생활적응력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해 집단상담을 통한 자아찾기와 조부모와 부모 마음 이해하기,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결연을 맺어 가족관계 결손을 보완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조부모-손자녀 통합프로그램의 내용은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과 상호호혜적인 관계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찜질방과 목욕체험, 사랑표현하기, 레크레이션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는 만족도, 긍정적 감정수준, 갈등조정방식, 의사소통수준의 전후차이를 봤으며 전체적인 만족도는 조부모(18점/25점)나 손자녀(14점/23점) 모두 유의한 향상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p < .001$ )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조부모들의 긍정적인 감정수준이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사후조사(14점/22점)에서는 유의한 차이( $p < .0001$ )를 보였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물질적인 지원이 아닌 것에 실망을 했다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정서적 위안을 받고 마음을 열게 되었으며, 손자녀들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갖고 다가왔다가 참여하면서 점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손가정에게 물질적 지원보다는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자들의 요구에 적합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